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광주 -2/6℃ 목포 -1/5℃ 여수 0/8℃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12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87호 1판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설 대목 굴비 말리기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28일 영광 법성포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해풍에 굴비를 말리고 있다. 영광굴비 특품사업단은 사업단장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카드와 굴비 이력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해 상품판매에 나선다. /영광=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선거가 더 바쁜 도의원들

지역구 활동 핑계 의정 뒷전…임시회 무더기 불참 '파행'

전남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무더기로 회의에 불참해 19~2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 행사 참석 등에 열을 올려 임기를 5개월 앞둔 도의회가 사실상 '파장(罷場)'이 된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28일 제 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밀 산업육성 조례안, 전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폐회식에는 전체 의원 50명 가운데 36%인 18명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폐회식뿐 아니라 지난 19일 열린 1차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등도 상당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회의 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등 의정 공백 사태를 빚었다.

1차 본회의 때는 7명의 의원이 불참했다. 특히 홍이식 부의장(민주·화순 2), 송주호(민주·완도 2), 조상래(민주·곡성 1), 이홍제(민주·순천2) 의원 등은 2차례의 본회의를 모두 불참했다.

홍 부의장은 "군정보고에 참석한데다, 자녀가 아파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고 송주호 의원은 "김영록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겹친데다, 지역 행사도 많아 불참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몸이 안좋아서",이 의원은 "소방발대식 등 지역행사도 많고 본회의 참석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10명이 정원인 경제관광위원회의 경우 지난 25일 절반이 넘는 6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 이 때문에 경관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F1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성공개최를 위한 현안이 산적해있음에도, 10명 중 고작 3명만 자리를 지켰다.

참석한 의원들도 건성건성이었다. 농수산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의 경우 이틀 일정으로 처리할 조례심사·업무보고 등의 안건을 하루에 몰아치기로 해치웠다.

현재 전남도의원 중 10여명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중이며 40명은 다시 도의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매번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 살리기 급속 확산

전남도·광주시, 시·도교육청 등 금호타이어 제품 구매운동 나서

'지역기업 금호살리기 운동'이 들불처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제품구매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도 금호타이어 구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시·도민들이 워크아웃으로 위기에 처한 금호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 〈관련기사 8면〉

광주시는 28일 광주시청을 비롯 광주지역 내 모든 관공서·유관기관에 '금호타이어 제품 구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키로 하는 등 금호살리기 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시내 5개 구청과 공사·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에 '금호타이어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공문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 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공기관 소속 차량과 직원 차량의 타이어를 금호제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타이어 교체시기를 조사한 뒤 금호 측과 협의를 거쳐 일괄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광주시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금호제품을 비롯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데 앞장서 왔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금호타이어를 살려내는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도 이날 금호타이어 제품 구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교육청은 일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타이어 교체 수요를 조사한 뒤 금호 측과 협의를 거쳐 '일괄구매 교체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안순일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교육청 차원에서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금호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순일 교육감은 "지역기업인 금호가 어렵다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정현석 기획관리국장도 "전남도의 금호타이어 돕기 운동에 교육청도 동참토록 하겠다"면서 "금호타이어 외에도 각 부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그룹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6일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도, 시·군 공무원 및 관계기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제품 구매운동'을 다음달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9일까지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달 3일 도청에서 금호타이어 본사와 전남도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제품 일괄구매 및 교체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이어 22개 시·군청이 일괄구매에 나서도록 하는 등 금호타이어 사주기 운동을 전 도민에게 확산시키기로 했다.

금호 측도 타이어를 공장도 가격보다 5%싼 값에 주기로 했으며, 시중에서 보통 개당 5천원 수준인 타이어 장착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홍행기·김지을·박진표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장 '배심원 경선' 오락가락

민주 정세균 대표 "도입 여부 설 이후 결정"
박주선·조영택 의원 등 반대 속 논란 증폭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놓고 당 지도부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설 이후에나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사 3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8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공천을 위한 시민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시·도당과의 소통과 협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원들의 여론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략공천 3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충분하며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뒤 "하지만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는 일정 부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 "중앙당 공심위 구성 및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다음달 설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강한데다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광역단체장의 경우, 유력한 지지기반이 있다면, 전략공천을 통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광주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영택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어떻게 다른 지역사람이 광주시장 후보를 뽑을 수 있느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 조직 담당인 강기정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광주시장 공천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드린 세상을 밝히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